연봉 73억 잭팟!

박지성, 맨유와 3년 재계약 합의

세부조건 구단에 일임

'산소 탱크'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3년 더 올드 트래퍼드에서 뛸 수 있게 됐다.

박지성의 에이전트사인 JS리미티드의 김정수 팀장은 14일 "박지성 선수가 맨유와 3년 재계약에 합의했다. 계약 기간은 2012년 6월30일까지다. 연봉은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7월 입단해 내년 6월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박지성은 3년 더 맨유 유니폼을 입는다.

연봉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종전 280만파운드(한화 56억9천만원)보다 30% 정도 오른 360만파운드(한화 73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영국 언론이 제기했던 '4년 계약에 주급 6만5천파운드'보다 계약 기간이 1년 적지만 주급은 7만파운드(한화 1억4천만원)로 조금 높은 수준이다.

김정수 팀장은 "연봉은 모 언론에 보도된 것과 비슷하지만 액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지성 측은 앞서 계약 기간 3년을 제외하고 연봉 등 세부적인 조건을 구단에 일임했었다. /연합뉴스

9년새 18배…하루 2천만원 벌어

박지성 연봉 얼마나 올랐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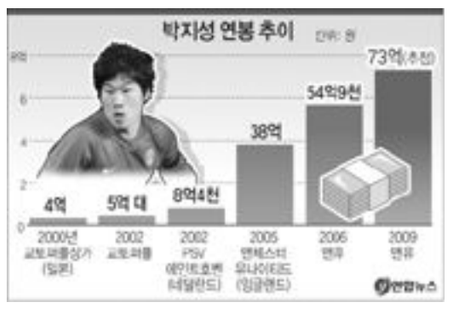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에서 뛰는 '산소 탱크' 박지성(28)의 최근 9년간 연봉이 무려 18배나 올랐다.

박지성의 에이전트사인 JS리미티드가 14일 "박지성과 맨유가 3년간 재계약에 합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연봉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종전 280만파운드(한화 56억9천만원)보다 30% 정도 오른 360만파운드(한화 73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기준으로 1년에 73억원을 버는 수준이면 1주일로 환산하면 1억4천만원, 하루에 2천만원을 번다는 계산이 나온다. 웬만한 사회 초년병이 버는 연봉 정도를 하루에 벌어들이는 셈이다.

2000년 일본프로축구 교토 퍼플상가에 입단하며 프로 생활을 시작했던 박지성의 당시 연봉은 4천만엔(한화 4억원)이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일본에서 활약한 박지성은 총 85경기에 나와 12골을 넣는 활약을 펼쳐 연봉을 5억원 대로 올려놨다.

이후 네덜란드로 진출해 에인트호벤에서 8억4천만원 정도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박지성은 맨유 첫해 200만파운드(38억원)로 5배 가까운 상승폭을 보였고 2006년 280만파운드(56억9천만원)에 이어 결국 360만파운드를 기록, 맨유 입단 5년 만에 첫 연봉의 1.5배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



박주영(왼쪽·AS모나코)이 14일(한국시간) 열린 프랑스 프로축구 정규리그에서 생제르맹의 수비수 새미 트라오레를 제치며 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영 시즌 첫 골 터졌다

생제르맹전 후반 40분 결승골…팀 2대0 승리 견인

프랑스 무대에서 활약 중인 박주영(24·AS모나코)이 올 시즌 첫 골을 폭발시키며 팀의 완승을 이끌었다.

박주영은 1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모나코 루이Ⅱ세 경기장에서 열린 생제르맹과 2008-2009 프랑스 정규리그(리그1) 5라운드 홈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나와 후반 40분 선제 결승골을 터뜨렸고 팀은 2-0으로 이겼다.

최근 모나코가 영입한 아이슬란드 출신 스트라이커 아이두르 구드욘센과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박주영은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강슛으로 상대 골망을 출렁였다.

올 시즌 박주영의 첫 골이자 프랑스 무대 진출 이후 자신의 통산 6호 골이다.

모나코는 박주영의 선제골과 후반 43분 안데르손 네네의 추가 골로 2-0으로 이겨 3승2패(승점 9)가 됐다.

박주영은 전반 26분 아크 왼쪽에서 상대 수비수 한 명을 따돌리고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으로 이날 자신의 첫 슈팅을 기록했다. 박주영의 슈팅은 상대 골키퍼 정면을 향하면서 득점은 불발됐다.

박주영은 1분 뒤에는 아크 정면에서 오른발로 상대 수비진을 무너뜨리는 로빙패스를 했지만 문전으로 뛰어들던 동료 네네가 한 발짝 늦었다.

기세가 오른 박주영은 전반 45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다시 한번 슈팅을 시도했지만 이 볼이 상대 수비수에게 맞고 굴절돼 아웃됐다.

박주영은 후반에는 오른쪽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비다 마침내 후반 40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중앙선 부근에서 알레한드로 알론소가 길게 올린 크로스를 받아 문전으로 쇄도하며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상대 왼쪽 골망을 강하게 출렁였다. 빠르고 날카로운 슈팅에 생제르맹 주전 골키퍼 그레고리 쿠페도 속수무책이었다.

모나코는 3분 뒤 네네가 알론소의 패스를 받아 아크 정면에서 추가 골을 터뜨려 사실상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연합뉴스

'여성 첫 14좌 완등' 마침표 찍는다

오은선, 안나푸르나 등정 위해 출국

여성산악인 오은선(43·블랙야크) 대장이 14일 히말라야 8천m 14좌 완등의 마지막 목표인 안나푸르나(8천91m) 등정에 나섰다.

오 대장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네팔 카트만두로 출국했다. 오 대장은 한달여 뒤인 내달 중순 안나푸르나 정상 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출국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다른 등정때 보다 오히려 더 차분하고 담담하다"라면서 "14좌 최초 완등이나 여성 산악인 최초라는 타이틀에 얽매이다 보면 무리할 수 있는 만큼 평상시의 마음을 갖고 애써 (흥분된) 마음을 누르고 있다"라고 밝혔다.

오 대장은 이어 "처음 8천m 등반을 시작할 때에는 만년설을 밟아보는 것 자체에 흥분했지만 좋아하는 길을 걷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라며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건강하게 다녀오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7월 낭가파르밧(8천125m)을 오른 뒤 내려오다 유명을 달리한 고(故) 고미영 대장의 사진과 유품을 안나푸르나 정상에 묻고 올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양시청 신승현·김영훈

볼링 '금빛 스트라이크'

광양시청 신승현·김영훈이 제29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단체대항 볼링대회 금메달을 획득했다.

신승현·김영훈은 14일 대전월드컵볼링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일반부 2인조전에서 216점을 기록, 박근우·김만구(경북도청·212.4점), 정진호·서정환(전북체육회·212.0점)조를 제치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개인전에선 최복음(광양시청)이 222.5점으로 김영표(대구북구청·230.5점), 김영표(대구북구청·230.5점)에 이어 아쉽게 동메달에 그쳤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슈퍼 맘' 클리스터스

US오픈 단식 정상에

'슈퍼 맘' 킴 클리스터스(벨기에)가 US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단식을 제패했다.

클리스터스는 14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14일째 여자단식 결승에서 캐롤라인 워즈니아키를 2-0으로 꺾고 2005년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정상을 탈환했다.

2003년 8월에 여자프로테니스(WTA) 세계랭킹 단식과 복식에서 모두 1위에 오르며 세계를 호령했던 클리스터스는 그러나 2007년 결혼과 함께 현역 생활을 접었고 지난해에는 딸까지 얻은 아기 엄마다. /연합뉴스

스포츠 주개

15일(화)

▲KRA컵 탁구 슈퍼리그 (13 : 50·KBSN SPORTS)

▲프로야구 〈KIA : 히어로즈〉(18 : 30·MBCESPN), 〈한화 : 삼성〉(18 : 15·SBS스포츠), 〈SK : LG〉(18 : 20·KBSN S-PORTS·Xports)